



한국 청년, 4명 중 3명은 '이직 경험 있다' 첫 직장에서선 평균 3년 근무!

- ▶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청년층의 직장이동 실태 자료(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)에 따르면, 청년층 임금근로자 가운데 '최소 1회 이상 직장을 옮긴(이직) 경험'이 있는 비율은 76%로 4명 중 3명에 달했고, 1회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 기준, 첫 직장에서 평균 3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[그림] 청년 직장인의 이직경험 유무 (%)



*자료 출처: 중앙일보, '청년 10명 중 8명, 첫 직장 떠난다...평균 2.9년만에 이직' 기사 참조, 2022.06.14.(<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78894#home>)
*원자료 출처: 한국고용정보원,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수록 논문(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과정에 관한 실증연구(황광훈/조용운), (2000-2010년까지 노동 시장에 진입한 임금근로자 3,419명, 2022.06.10.)

◎ 청년의 첫 직장 유지율, 대기업/고학력/남성 일수록 높아!

- ▶ 첫 직장을 계속 다니는 비율(첫 일자리 유지 비율)은 여성보다 남성이, 학력이 높아질수록,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교적 높았다. 첫 일자리부터 불안정하고 취약한 고용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경우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이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[그림] 청년 직장인의 첫 일자리 유지 비율 (%)



*자료 출처: 중앙일보, '청년 10명 중 8명, 첫 직장 떠난다...평균 2.9년만에 이직' 기사 참조, 2022.06.14.(<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78894#home>)
*원자료 출처: 한국고용정보원,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수록 논문(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과정에 관한 실증연구(황광훈/조용운), (2000-2010년까지 노동 시장에 진입한 임금근로자 3,419명, 2022.06.10.)